

옛날, 영천(永川) 이목사(李牧使)<sup>1)</sup> 시절에 우리나라 국(國)이 덩덩<sup>2)</sup>할 때, 대정(大靜) 가민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의(旌義)가민 정유헌감(旌義縣監) 주의판관(州判官) 맹월<sup>3)</sup>만호(明月萬戶) 항바드리<sup>4)</sup> 조방장(助防將) 삼 古을에 수관장(四官長) 마련할 때, 영천 목사(永川牧使)가 제주(濟州)로 도입<sup>5)</sup>하야 산뒤[山後] 산앞[山前] 덩기명 당도 오백[五百] 불천수<sup>5)</sup> 시겨, 절도 오백 파기 파산(破壞破産)시켜, 그 때에 동양 일대중[一大僧]이 들어와 푼체<sup>6)</sup> 혼 가지 갈라다 동양 삼국에 절당[寺堂]을 마련할 때,

영천목사(永川牧使)가 당과 절을 파기파산<sup>7)</sup>하며, 제주 삼문안[三門內] 들어와, 나문밖[南門外] 만년폭낭 알<sup>7)</sup> 좌정한 옥황상제 말자<sup>8)</sup>말자[玉皇上帝末女]<sup>8)</sup> 귀양으로 내려와 일곱자[七尺] 걸랫배<sup>9)</sup> 거느리고 굴송낙<sup>10)</sup>을 둘러써 인간 조손을 그늘루는디<sup>11)</sup> 영천목사가 마주막 이 당을 파산을 시기 저 하야 동안 안[東軒內]에서,

“삼문 안[三門內]에 신의 성방(神—刑房)이 있다니 신의성방을 불러들이라.”

그때에 무근성[陳城洞]<sup>12)</sup> 고망호 대장(高萬戶大靜) 원천강(袁天綱) 팔조(八字) 굿어 신의억만상신충<sup>13)</sup>으로 전생(前生)굿어<sup>14)</sup> 덩길 때, 눈을 감으면<sup>15)</sup> 저생[彼生]이고 눈을 뜨면 이생[此生]이 돼 여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하니, 동안(東軒)에서 고씨상신충 데동(帶同)시깁데다.

고씨선성(高氏先生)이 동안(東軒) 이이 앞으로<sup>16)</sup> 업대<sup>17)</sup>하니<sup>17)</sup> 영천목사(永川牧使)가 말씀<sup>18)</sup>하되

“너가 신의 성방(神—刑房)일러냐?”

“예.”

“너이 신의성방이건 당(堂)에도 영급(靈及)이 있느냐?”

“예, 영급이 있습네다.”

“그러거든 아무날 아무시에 당에 영급을 베와라.”<sup>18)</sup>

“예, 영급을 베웁겠수다.”

영천목사에 어인 타인(御印打印)<sup>19)</sup>을 놓아두고 집으로 오는디 ‘어떤 멍[命]을 나리와 이 몸을

1) 이목사(李牧使) : 숙종(肅宗) 때 이형상(李衡祥) 목사(牧使).

2) 덩덩 : 북소리의 의음(擬音)으로 태평성대인 때의 표현.

3) 맹월 : 한림을 명월리(翰林邑明月里).

4) 항바드리 : 애월면 고성리(涯月面古城里).

5) 불천수 : 불사름, 찬수(瓊璣).

6) 푼체 : 부처.

7) 만년폭낭 알 : 만년 팽나무 아래.

8) 옥황상제 말자<sup>8)</sup>말자[玉皇上帝末女] : 제주시 삼도 1동(三徒一洞) 남문통(南門通)의 각시당 신명(神名).

9) 걸랫배 : 아기 없는 멜빵.

10) 굴송낙 : 고깔.

11) 그늘루는디 : 도와 기르는데.

12) 무근성(陳城洞) : 제주시 삼도2동(三徒二洞).

13) 신의억만상신충 : 상신충과 같음. ‘상신충’은 심방의 제일 위 계급.

14) 전생(前生)굿어 : ‘전생 굿다’함은 심방이 되다의 뜻.

15) 감으면 : 감으면.

16) 이이 앞으로 : 댕돌 앞으로.

17) 업대<sup>17)</sup>하니 : 엎드리니.

18) 베와라 : 보여라.

19) 어인 타인(御印打印) : 약속 도장을 찍음의 뜻.

목 베어 죽이자는고?’ 근심과 수심이 7득잡데다.

그 때, 절당[寺堂]엿 신님<sup>20)</sup> 을 불러놓고 영천목수가,

“너의 절당에 영급(靈及)이 있겠느냐?”

절당 직헌<sup>21)</sup> 중도,

“예 푼처님에 영급이 있습네다.”

아무날 푼처님에 영급을 베와라.”

“예.”

아무날 아무시엔 동안(東軒)에 푼처님을 눅져놓고<sup>22)</sup> 이 푼처님이 일어나도록 절당 직한 중안티<sup>23)</sup> 불공을 하라 하니, 그 푼처님이 일어나질 못하고 영급을 못베웁데다.<sup>24)</sup>

그 때, 나문밖[南門外] 각시당한집에 병맷기[兵馬旗]<sup>25)</sup> 꼽아논 걸<sup>26)</sup> 보고, 영천목수(永川牧使)가 멍[命]을 하되,

“저 병맷기가 관데청(觀德亭) 동안(東軒)??지 걸어오도록 곳을 치라.”

신의성방은,

“예, 소인도 소원의 말씀을 올리리다.”

“무슨 말일러냐?”

“저이 혼차 기도를 드릴 수 엿어 칠일 일주일 정성을 주옵소서.”

“어서 그리 하자.”

그때에 신의성방은 집으로 돌아와 영양당주전<sup>27)</sup>에 모든 신원(伸冤)을 올려 두고, 멘[面]이민 멘공원(面公員) 멘향수(面鄉首)<sup>28)</sup>를 불르고 도(島)민 도고원(島公員) 도향수(都鄉首)를 불러 칠일 뉘는 날 동안(東軒) 마당에서 신정국<sup>29)</sup>을 내올려 곳을 훑 때 삼천군병(三千軍兵)<sup>30)</sup> 지사비고<sup>31)</sup> 엄복지주잔(飲福之酒盞)<sup>32)</sup>을 동안(東軒) 관데청(觀德亭) 지붕을 지냉겨<sup>33)</sup> 나문밖(南門外) 각시당 한집 옥황문(玉皇門)과 불도문(佛道門)을 올리고 신당문(神堂門) 본당문(本堂門)을 올려<sup>34)</sup> 본향(本鄉) 한집이 동안(東軒)에 신수퍼 오저<sup>35)</sup> 신청괘<sup>36)</sup>가 근당(近當)허여 신의성방(神—刑房) ㄴ단착<sup>37)</sup> 석자오치[三尺五寸] 본향풀찌<sup>38)</sup>를 둘러메여 각시당한집에 신청괘를 지날 때, 삼천병맷기(三千兵馬旗)가 동안(東軒)마당??장 걸어온 건 아니우다마는<sup>39)</sup> 삽시간에 천아가 요동하고, 천만년 폭낭

20) 신님 : 스님.

21) 직헌 : 지킨.

22) 눅져놓고 : 눅혀놓고.

23) 중안티 : 중한테.

24) 못베웁데다 : 못 보입디다.

25) 병맷기(兵馬旗) : 당곳을 할 때 높은 대에 달아내는 기. ‘병맷대’ ‘삼천병맷대’라고도 함.

26) 꼽아논 걸 : 꽃아놓은 것을.

27) 영양당주전 : 영연(靈筵)당주전. 당주와 간음.

28) 멘향수(面鄉首) : 신방청(神房廳)의 직위명(職位名).

29) 신정국 : 무악기(巫樂器) 소리를 일컫는 말.

30) 삼천군병(三千軍兵) : 전란 때 비명(非命)에 죽은 잡귀(雜鬼)를 대접하는 시왕맛이의 한 제차(祭次).

31) 지사비고 : 사귀고. 달래고.

32) 엄복지주잔(飲福之酒盞) : 술을 담아 봉한 작은 술병.

33) 지냉겨 : 넘겨. ‘지-’는 접두사.

34) 올려 : 열어.

35) 신수퍼 오저 : 신이 숙어 내려 오고자.

36) 신청괘 : 신을 청해들이는 제차명.

37) ㄴ단착 : 오른쪽.

38) 본향풀찌 : 본향신(本鄉神)에게 곳을 할 때 심방이 오른쪽 팔에 감아 묶는 명주 따위 천(팔찌).



이<sup>40)</sup> 홀연광풍(忽然狂風)을 만난 듯이 낭썰 낭가지<sup>41)</sup>에서 휘후리는 소리<sup>42)</sup>가 지나가더니, 밧작 샷던<sup>43)</sup> 삼천벵맷기가 하늘과 땅세 와드드드<sup>44)</sup> 털기<sup>45)</sup> 시작하여 가난, 그 때 영천목수(永川牧使)가 손바닥을 탁 치명<sup>46)</sup>,

“삼문(三門) 밧기 신당(神堂) 본당(本堂)은 나 손으로 파산 불천수<sup>47)</sup>를 시겼주마는<sup>48)</sup> 삼문안[三門內]의 신당 본당은 영급(靈及)이 싯구나.”<sup>49)</sup>

영천목수가 삼문안[三門內] 신당(神堂)은 파산을 못시기고 출도를 헹오테다.

그 때옛 법으로 이 오늘까지도 삼문안[三門內] 각시당, 삼문토주관(三門土主官), 과양당(廣壤堂) 고산태오시오전한집<sup>50)</sup>과 서문밧[西門外] 상동날물<sup>51)</sup> ㄱ[邊]의 정절상군농<sup>52)</sup> 시내왓당 열두시오전[十二神位前]<sup>53)</sup>과 상서대왕(上事大王) 상서부인 삼월 열나흘날 꽃놀이<sup>54)</sup>헹던 여리불도(如來佛道) 녹디하르방 녹디할망,<sup>55)</sup> 밧겻들로<sup>56)</sup> 남돔배<sup>57)</sup> 낭칼[木刀]에 쉼돔배<sup>58)</sup> 청토(靑刀) 황토(黃刀) 거느리던 본당(本堂)한집, 동문밧(東門外) 운지당[運籌堂] ㄱ스락당<sup>59)</sup> 용여국대부인(龍女國大夫人)<sup>60)</sup> 산지(山地)<sup>61)</sup> 용궁칠머리<sup>62)</sup> 세벤도원수(世變都元帥) 헤신국(海神國)<sup>63)</sup> 파산(破産)을 못시기고 오늘까지 만대유전(萬代遺傳)을 시겨 옹네다.

## 2

옛날, 제주(濟州) 탐라국(耽羅國)에 한라산에 노리[獐] 사슴 산툫[山猪]이 만헹다 헹니, 순농 ㄱ을 안포수(安砲手) 삼형제가 제주산(濟州山) 사농으로<sup>64)</sup> 입도(入島)해야 큰성님[伯兄一]은 서문밧[西門外] 어도(於道里)<sup>65)</sup> 어림비[於音里]<sup>66)</sup>를 들어사고 셋성님[仲兄一]은 과납[納邑里],<sup>67)</sup> 족은아시[末弟]는 서늘곳[善屹藪]<sup>68)</sup> 들어가 사농을 헹여 사는디, 어도 어림비[於道・於音里] 큰성님은 사

39) 아니우다마는 : 아납니다마는.

40) 폭낭이 : 팽나무가(神木).

41) 낭썰 낭가지 : 나뭇잎 나뭇가지.

42) 소리 : 울리는 소리, 회오리바람 소리.

43) 밧작 샷던 : 곧게 샷던.

44) 와드드드 : 크게 떠는 모양.

45) 털기 : 떨기.

46) 치명 : 치면서.

47) 불천수 : 불사름, 찬수(瓊燧).

48) 시겼주마는 : 시켰지마는.

49) 싯구나 : 있구나.

50) 고산태오시오전한집 : 제주시 광양동(光陽洞)에 있는 광양당의 신명(神名).

51) 상동날물 : 제주시 용담동(龍潭洞) 한천(漢川)에 있는 물 이름.

52) 정절상군농 : 내왓당의 신명.

53) 열두시오전(十二神位前) :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내왓당의 신명(神名).

54) 꽃놀이 : 내왓당의 분파인 제주시 용담동의 궁당에서 하는 당굿 이름.

55) 녹디할망 : 궁당의 신명.

56) 밧겻들로 : 바깥으로.

57) 남돔배 : 나무도마.

58) 쉼돔배 : 쇠도마.

59) ㄱ스락당 : 용담동 한데기의 본향당.

60) 용여국대부인(龍女國大夫人) : ㄱ스락당의 신명.

61) 산지(山地) : 제주시 건입동(健入洞).

62) 용궁칠머리 : 건입동의 본향당인 '칠머릿당'을 뜻함.

63) 세벤도원수(世變都元帥) 헤신국(海神國) : 칠머릿당의 신명.

64) 사농으로 : 사냥으로, 사냥하러의 뜻.

65) 어도(於道里) : 애월면 어도리(涯月面於道里).

66) 어림비(於音里) : 애월면 어음리(於音里).

67) 과납(納邑里) : 애월면 납읍리(涯月面納邑里).

68) 서늘곳(善屹藪) : 조천면 선흘리(朝天面善屹里)의 숲(藪).

농질<sup>69)</sup>이 잘 돼여 엇인 재산(財産) 일루와<sup>70)</sup> 잘 살고, 과납[納邑里] 셋성님도 사농업[狩獵業]이 잘 돼여 잘 살고, 서늘[善屹里] 족은 동싱<sup>71)</sup> 사농업도 아니돼고 간곤(艱困)하고 서난하게<sup>72)</sup> 살아 지여 “나하고 ㄱ찌 온 성제간(兄弟間)덜은 다 잘 살건만 어찌 나는 이리 돼는고.”

옛날도 ㄱ꺾 헉난<sup>73)</sup> ‘문복(問卜)이나 허여보저.’ 신안(神眼)을 좇아 문점(問占)을 하니 산신에 기도를 하라 한다.

“어느 신의 성방(神—刑房)이 잘 하는고?”

도성안[都城內]<sup>74)</sup> 무근성[陳城洞] 고씨성방(高氏刑房)<sup>75)</sup>이 우명[有名]나다 허여, 서늘곳[善屹藪] 안씨덱의 신소미[神小巫]를 거느리고 두일뤼[二七日] 열나흘 신정국을 내올려, 대통기<sup>76)</sup> 소통기를 비수와<sup>77)</sup> 안으로 스당클<sup>78)</sup>을 추겨메와 원성기도(原情祈禱) 제맞이<sup>79)</sup>를 하옵데다.

굿을 끝ㅁ까<sup>80)</sup> 신소미를 거느리고 상안체<sup>81)</sup>를 거느려 도성안[都城內] 들어사자 베릿내[別刀川]<sup>82)</sup> 연무정(演武亭)<sup>83)</sup>을 당하니, 안체진<sup>84)</sup> 신소미가 난디웃이 양독지[兩肩]가 절아지고<sup>85)</sup> 안체가 베여<sup>86)</sup> ‘이게 웬 일이고.’ 팡<sup>87)</sup> 우의<sup>88)</sup> 안체포를 부려 클러보니<sup>89)</sup> 췌주멍기<sup>90)</sup> 안에 청(靑)만주에미<sup>91)</sup> 흑(黑)만주에미 웨오느다<sup>92)</sup> 동시룽<sup>93)</sup> 사려<sup>94)</sup> 누어시니 신의 성방(神—刑房)은,

“나에게 테운 초상(祖上)이로고나. 어서 가자.”

안체포를 도로 무끄저<sup>95)</sup> 흘 때, 아니 보제<sup>96)</sup> 신의성방이 고람창<sup>97)</sup>을 보니, 웬 중[僧] 하나 호름춤치<sup>98)</sup> 아강베포<sup>99)</sup> 둘러지어 박아지고<sup>100)</sup> 누어시니, 신의 성방은 겁이 나고 ‘이게 웬일인가?’ 둘러들어 중의 머리 둘러 보니 목숨은 살아 있고 스경(死境)에 당하여시니, 신의성방이 말을

69) 사농질 : 사냥질.

70) 일루와 : 일으켜.

71) 족은 동싱 : 작은 동생.

72) 서난하게 : ‘가난’에 맞춘 조운(調韻). 조어(造語)를 관용(慣用)한 것.

73) ㄱ꺾 헉난 : 갑갑하니.

74) 도성안(都城內) : 현 제주시내.

75) 고씨성방(高氏刑房) : 고씨 신의 형방(刑房)의 축약. 곧 고씨심방(高氏神房).

76) 대통기 : 큰굿 때 세우는 기.

77) 비수와 : 세워의 뜻.

78) 스당클 : 큰굿을 할 때 삼방(마루방)의 네 벽에 선반처럼 달아매어 꾸미는 기본 당클.

79) 원성기도(原情祈禱) 제맞이 : 굿을 일컫는 말.

80) 끝ㅁ까 : 끝맺어. 끝나.

81) 상안체 : 신방이 굿을 하러 갈 때 멩두(신칼, 산판, 요령)를 넣어 가고, 돌아올 때는 이 멩두와 얻은 쌀을 담아오는 자루. 안체포라고도 함.

82) 베릿내(別刀川) : 제주시 화북동(禾北洞)의 내 이름.

83) 연무정(演武亭) : 제주시 동문로(東門路)에 있었던 정(亭).

84) 안체진 : 상안체를 진 소무(小巫)가.

85) 절아지고 : 절리고.

86) 베여 : 무거워.

87) 팡 : 짐을 부려 실 수 있는 넉적한 돌.

88) 우의 : 위에.

89) 클러보니 : 끌러 보니. 풀어 보니.

90) 췌주멍기 : 무점구(巫占具) 천문 상잔을 넣는 주머니.

91) 청(靑)만주에미 : 작은 뱀.

92) 웨오느다 : 좌우로.

93) 동시룽 : 동그스름한 모양.

94) 사려 : 서리어.

95) 무끄저 : 묶으려고. 묶으자고.

96) 아니 보제 : 보려고 아니했는데.

97) 고람창 : 고랑창.

98) 호름춤치 : 중이 재미(齋米)를 얻으러 다닐 때 쌀을 넣어 지게 된 주머니 비슷한 것인 듯.

99) 아강베포 : 중이 재미(齋米)를 얻으러 다닐 때 등에 지는 멜빵으로 보자기 비슷한 것인 듯.

100) 박아지고 : 얹어지고.

하되,

“이게 어떤 일이오?”

고개를 숙였던 중이 머리를 들어 말을 하되,

“나는 절당[寺堂] 직헌 중인디, 노상에서 시장기 헌이 엇어 스경이 뉘옵네다.”

그 말 들은 신의성방은 얼른 안채포를 클러놓고 물굽[馬蹄] 뜰 백(白)시리<sup>101)</sup> 백둘레<sup>102)</sup>를 앓아내여<sup>103)</sup> 중앞의<sup>104)</sup> 먹으랜 내여주니, 그 중은 그걸 먹으난 산도 넘고저라<sup>105)</sup> 물도 넘고저라. 엇었던 정신이 돌아와 말을 하되,

“신의성방님아, 무엇으로 이 공을 갚으리까? 신의성방 덕으로 이 몸이 살아져시니, 저가 힘 다하여 공을 갚아 드리리다. 당신이 모사 온<sup>106)</sup> 초상(祖上)에<sup>107)</sup> 어떤, 눈에 펜식[變識]헌 일이나 없습네까?”

“예 있습니다. 나 몸받는 초상에 난디웃인 청만주에미 중싱<sup>108)</sup> 췌주멍기 안에 셔<sup>109)</sup> 그게 필시 이상헌 일이로다 생각웁네다.”

중이 그 말 끄때,

“신의성방이 기도(祈禱)를 하레 갔던 집안에 부군칠성(富君七星)이 뉘옵네다. 그 초상이 헌(限)이 뉘고 때가 뉘여 당신에 태운 조상이니 어서 그십서.”<sup>110)</sup>

중이 뒤조차 오라, 신의성방(神—刑房) 사는 거저리<sup>111)</sup> 남도처귀<sup>112)</sup> 비조리초막집<sup>113)</sup>에 그날 밤 유이(留依)하고 뒷날 아침 당하니 울안을 감돌명 감돌명 날이 근(近) 닛[晝]이 근당(近當)하니, 고씨성방(高氏刑房)을 불르고,

“거적문에 남돌척 비조리초막이라도 이 자리에 천년 성주(千年成造)를 무어<sup>114)</sup> 살암시민<sup>115)</sup> 알도레(道理) 있오리다.”

그 발로 나오라<sup>116)</sup> 고씨성방을 드리고 동산 동산 마련하느<sup>117)</sup> 것이 향교(鄉校)<sup>118)</sup>를 지나고 사누장터<sup>119)</sup>를 들어가 군왕지기(君王之地) 땅 자우청룡(左右靑龍)을 마련하고 우백호(右白虎)를 마련하고 췌<sup>120)</sup>를 노아 마련하되

“이 췌 알[下]로 생수(生水)가 이실까?”

---

101) 백(白)시리 : 흰 시루떡.

102) 백둘레 : 흰 둘레떡.

103) 앓아내여 : 가져내어.

104) 중앞의 : 중에게.

105) 넘고저라 : 넘고 싶어라.

106) 모사 온 : 모셔온.

107) 초상(祖上) : 안채포 내(內)의 무구(巫具) 멍두를 말하는 것.

108) 중싱 : 짐승.

109) 셔 : 있어.

110) 그십서 : 걸으십시오. 가십시다의 뜻.

111) 거저리 : 거적(거적문)의 뜻.

112) 남도처귀 : 나무돌쩌귀.

113) 비조리초막집 : 아주 작은 초막(草幕).

114) 무어 : 지어. 천년 살 집을 지어의 뜻.

115) 살암시민 : 살고 있으면.

116) 나오라 : 나와.

117) 마련하느 : ‘동산 동산 마련한다’함은 묘(墓) 자리를 구해 돌아다님의 뜻.

118) 향교(鄉校) : 제주시 용담동(龍潭洞)에 있는 제주향교(濟州鄉校).

119) 사누장터 : 용담동(龍潭洞) 한천(漢川) 결의 지명.

120) 췌 : 자석반(滋石盤).



“예, 유명한 용수(龍水)<sup>121)</sup>란 생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어서 이 땅에 와 감장(勘葬)<sup>122)</sup>하민 이 앞의 생수(生水)가 좇아질 때? 지는 도성안[都城內]을 울리고 말거우다.”<sup>122)</sup>

곧는 대로<sup>123)</sup> 고씨 신의성방(高氏神—刑房) 아바님을 천리(遷移)<sup>124)</sup>해다<sup>125)</sup> 뽕긋진 들로<sup>125)</sup> 감장 시겨, 그 산의<sup>126)</sup> 영기(靈氣)로 신의성방이 눈을 곰아 저승 일, 눈을 떠 이승 일,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해야 하늘일 땅일을 다 알아 당대(當代)에 베실은 대장(大靜)<sup>127)</sup>을 베풀어준다.

조식(子息)이 나 삼문(三門)<sup>128)</sup>을 뒤희들어 쳇조식에 주의판관(州判官)<sup>129)</sup>을 베풀고 이차조식[第二子息]에 대정현감(大靜縣監)을 베풀고 셋차조식에<sup>130)</sup> 정윳현감(旌義縣監), 조손(子孫)에 멩월만 호조방창(明月萬戶助防長) 상교훈장(鄉校訓長) 이령좌수[留鄉座首] 벨감청(別監—)을 차지해준다.

용수(龍水)의 생수(生水)가 벤[邊]흠이 엇일 것 ?따도<sup>131)</sup> 시대(時代)와 때에 뽕락<sup>132)</sup> 벤흠이 뒤희여져 용수이 좇아지는<sup>133)</sup> 대로 조손덜토 좇아져 조은 재산(財産)도 절로 엇어지는 듯해준다.

그 옛날 삼문안[三門內]을 뒤희들어 천아거부(天下巨富)를 하고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여 조손에 유전(遺傳)을 하옵던 조상입네다.

### 3

옛날 우리 제주에 칠년한기(七年 旱氣) 구년송년[九年 凶年] 든 때, हु다 हु는 비우제[祈雨祭]를 다 하고 हु다 हु는 축원을 다 드려도 칠년한기가 들어 벅성이 다 죽게 뽕 때,

고대장(高大靜)<sup>134)</sup> 술칩[酒幕]에 앓아 술 먹으멍 방안타령 हु 것이,

“내 비우젤<sup>135)</sup> 지내민 곧 비가 오컬.”<sup>136)</sup>

허였더니, 이 말이 관원에 들어가, हु를날은 고대장(高大靜)을 동안(東軒)에 불려단, 사또이 हु는 말이

“너는 아무 술주막 방안에서 비우제[祈雨祭]를 지내민 비가 온댄<sup>137)</sup> 말을 허였느냐?”

“예, 입을 연 도례(道理)가 있습니다.”

“너가 그레민 비우제를 지내민 비가 오겟느냐?”

“그거야 알 수가 있오리까마는 비우제를 디려 비가 올 듯हु나이다.”

121) 용수(龍水) : 제주시 용담동(龍潭洞)의 용연(龍淵).

122) 말거우다 : 말 것입니다.

123) 곧는 대로 : 말하는 대로.

124) 천리(千里)해다 : 이묘(移墓) 해다.

125) 뽕긋진 들로 : 자석반 놓았던 곳으로.

126) 산 : 묘(墓).

127) 대장(大靜) : 대정현감(大靜縣監).

128) 삼문(三門) : 제주성 내 동서남문.

129) 주의판관(州判官) : 제주판관(濟州判官).

130) 셋차 조식에 : 셋째 자식에.

131) 엇일 것 ?따도 : 없을 것 같아도.

132) 뽕락 : 따라.

133) 좇아지는 : 찾아지는.

134) 고대장(高大靜) : 고대정현감(高大靜縣監).

135) 비우젤 : 기우제(祈雨祭)를.

136) 오컬 : 곧 비가 올 것을.

137) 온댄 : 온다고.

“그레민 너가 비우제를 한번 지나보기 어찌느냐?”

관원에서 명령(命令)을 받아 나온 고대장(高大靜)은 태산 7튼 수심과 근심이 혼(限)이 엇어지고, 이 일을 어찌하민 조리야.<sup>138)</sup>

도공원(都公員)<sup>139)</sup> 도황수(都鄉首) 멘공원(面公員)<sup>140)</sup> 멘황수(面鄉首) 열두금제비청을<sup>141)</sup> 다 불러노아 칠일 정성과 몸정성을 드려 용소(龍沼) 머리 당밧디<sup>142)</sup> 천포답<sup>143)</sup> 울둘러<sup>144)</sup> 안으로 연양스당클<sup>145)</sup> 추겨메고 생짱으로<sup>146)</sup> 싣밧발 용(龍)을 무어 머리와 몸천<sup>147)</sup>은 연양스당클에 추겨올리고 끌리는 용소(龍沼)물깍<sup>148)</sup>에 등가,<sup>149)</sup> 천상 천아(天上天下)에 노는 신도(神道) 천지혼합시(天地混合時) 이알[以下]로 다 청허여, 도공원(都公員) 도황수(都鄉首) 어느 원에 신원(伸冤)을 드려도 날은 청청(靑靑) 몹아지고 어느날 어느시 지멸홀 쉬 엇어지고<sup>150)</sup> 칠일 일뤼[七日] 뉘는 날은 원성기도(原情祈禱) 젿맛이<sup>151)</sup>를 끝마치게<sup>152)</sup> 뉘여지고, 몸받은 신의 성방(神의 刑房) 고대장(高大靜)은 초감제<sup>153)</sup>로 읍서<sup>154)</sup> 혼 신전(神前)은 다 돌아사시는 디 행차도진(行次都進)<sup>155)</sup> 시겨가며,

“신전(神前)은 상(床)받아 고이 돌아사건마는 신의 성방(神의 刑房)은 이 오늘 동안안(東軒內) 들어가민 목을 굴려<sup>156)</sup> 죽게 뉘네다. 맹천(明天) 7튼 하늘님도 이리 무심하옵네까?”

눈물을 흘려가며 축원의 말씀을 올렸더니, 사라봉(沙羅峯)<sup>157)</sup> 상봉(上峯)으로 주먹만흔 먹정 7튼<sup>158)</sup> 구름이 솟아 올라 청청 몹던 하늘 위[上]을 뒤더끄더니<sup>159)</sup> 훤은<sup>160)</sup> 빗방울 줌진<sup>161)</sup> 빗방울 7몸에<sup>162)</sup> 빗살을 비추우더니, 하늘이 요동하고 번개를 처가며 대오방수천리(大雨方數千里)로 비가 내려올 때, 도공원(都公員) 도황수 멘공원 멘황수(面鄉首) 열두금제비청 홀 거 엇이 싣밧발 용 몸천을<sup>163)</sup> 머리로 끌리??지 독지[肩]에 둘러메여 신전국<sup>164)</sup>을 내올리멍 울쨍울뵙<sup>165)</sup>을 내올리멍 동안(東軒) 마당??지 행열(行列)을 허여 들어가고 관원(官員)에 스뉘(使道)나 이방 성방 홀 거 엇이 삼?을[三縣]<sup>166)</sup>에 스관장(四官長)을<sup>167)</sup> 다 입참(入參)시겨노아 비오는 동안 마당 드리둥둥<sup>168)</sup>

138) 조리야 : 좋으랴.

139) 도공원(都公員) : 이하 무격(巫覡) 단체인 신방청(神房廳)의 임원들.

140) 멘공원(面公員) : 면(面) 신방청의 임원.

141) 열두금제비청 : 많은 '제비'들을 일컫는 말. '제비'는 무속의례(巫俗儀禮) 때 심부름하는 소미(小巫).

142) 당밧디 : 당이 있는 밧. 지명.

143) 천포답 : 천막(天幕).

144) 울둘러 : 율타리 둘러.

145) 연양스당클 : 영연(靈筵) 4당클.

146) 생짱으로 : 생짱으로.

147) 몸천 : 육신(肉身).

148) 용소(龍沼)물깍 : 물줄기의 끝.

149) 등가 : 담가.

150) 지멸홀 쉬 엇어지고 : 지적할 수 없어지고(비올 날을).

151) 원성기도(原情祈禱) 젿맛이 : 굿을 일컫는 말.

152) 끝마치게 : 끝맺게.

153) 초감제 : 청신(請神)의 제차명(祭次名).

154) 읍서 : 오십시오.

155) 행차도진(行次都進) : 신을 모두 돌려 보냄의 뜻.

156) 굴려 : 끌기어.

157) 사라봉(沙羅峯) : 제주시 건입동(健入洞)에 있는 악명(岳名).

158) 먹정 7튼 : 먹장 같은.

159) 뒤더끄더니 : 뒤엎더니.

160) 훤은 : 굵은.

161) 줌진 : 자잘한.

162) 7몸에 : 가몸에.

163) 용몸천을 : 용(龍)의 몸뚱이를.

164) 신전국 : 무악기(巫樂器)를 일컫는 말.

165) 울쨍울뵙 : 징과 북.

내올려 신닷발 용몸집에 스베(四拜)를 드려두고 지동토인(妓童通引) 선배 후배(先陪後陪) 마후배(馬後陪) 삼만관속(三獻官屬) 옥방하인 다 내수와<sup>169)</sup> 피리단절<sup>170)</sup> 옥단절(玉短笛) 일갈리[一官奴] 일제석[一妓生] 제광대(諸廣大) 제스령(諸使令) 다 내여 팔즈(八字)긋인 신의 성방(神-刑房)덜 벌련뒷게(別輦獨轎) 쌍가매(雙駕馬)에 모사<sup>171)</sup> 삼문안[三門內]을 가오(家戶) 집집마다 제석공(帝釋宮)에 연당알 신의소미(神-小巫)<sup>172)</sup> 내여놓고, 칠년한기(七年旱氣) 흉년(凶年)에라도 눈물에 적진 쓸<sup>173)</sup> 훈 방울씩이라도 권제(勸齋)를 모아 신의성방이 호근<sup>174)</sup> 대잔치를 올립데다. 눈물을 거둬지 못한 신의성방덜은 지뽀에<sup>175)</sup> 넘쳐 무심하던 하늘님도 전싱(前生)긋인 신의성방이 서루움을 알아 봉축(奉祝)하야 누리우는 빗방울을 무심(無心)이덜 들어갈 수 엇어 그 비가 끝나도록 동안(東軒) 마당에서 데동(帶同)허여 지냅데다.

멧시간 아니 온 비가 시내방천<sup>176)</sup>이 그득차고 세파랑훈<sup>177)</sup> 해강(海角)기<sup>178)</sup> 세카망훈<sup>179)</sup> 물로 벤식(變色)이 돼여, 뒷날 아침엔 어느 집을 막론하고 농부덜이 떠령쉐예<sup>180)</sup> 밧장기<sup>181)</sup>를 짚어지와 한부중<sup>182)</sup>에 타랑(打令)소리<sup>183)</sup> 동안마당에 관원덜토 나아사 지뽀 웃음 웃고, 그 해[年]부터 칠월 열나을 백중(百中) 소리<sup>184)</sup>가 당훈민 팔즈(八字)긋인 신의 성방 어느 성방칩<sup>185)</sup>을 막론하고 백중대제일(百中大祭日)을 지나, 백중 마랑(馬糧)<sup>186)</sup> 시만국(新萬穀)을 받아옴데다. 그 때엿 법으로 칠월 열나을 백중이 근당(近當)훈민 초제일(初祭日)을 마련하던 법입네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 1

옛날, 영천 이목사 시절에 우리나라가 태평할 때, 대정 가면 대정현감 정의 가면 정의현감 주판관 명월만호 향파두리 조방장 삼고을에 사관장이 있을 때, 영천 목사가 제주에 도임하여 산 뒤 산 앞을 다니면서 당도 오백 불사르고, 절도 오백 파괴시킵니다. 그때에 동양의 큰 스님이 들어와 부처 한 가지를 갈라다 동양삼국에 절을 마련합니다.

166) 삼기울(三縣) : 제주, 대정(大靜), 정의(旌義).

167) 소관장(四官長)을 : 세 현감과 명월만호(明月萬戶)를 말함.

168) 드리둥둥 : 무악기(巫樂器)를 계속 치는 모양 또는 그 소리.

169) 내수와 : 나오게 하여.

170) 피리단절 : 피리, 단적(短笛).

171) 모사 : 모시어.

172) 신의소미(神-小巫) : 전제석궁당클(祭棚)에 소속된 소미(小巫), 수소미(首小巫)임. '연당알'은 영연당클

173) 적진 쓸 : 적진 쌀.

174) 호근 : 미상.

175) 지뽀에 : 기뽀에.

176) 시내방천 : 시내 방천(防川). 큰 내의 뜻.

177) 세파랑훈 : 새파란.

178) 해강(海角)기 : 해변(海邊)이.

179) 세카망훈 : 새카만.

180) 떠령쉐예 : 소(牛)를 일컫는 말.

181) 밧장기 : 밧쟁기.

182) 한부중 : 한창 부중(付種). '부중'은 좁씨를 파종함의 뜻.

183) 타랑(打令)소리 : 좁씨를 뿌리고 마소로 밭을 밟은 노랫소리를 뜻함.

184) 소리 : 사이. 경(頃).

185) 성방칩 : 신의 형방(刑房)집. 무당집.

186) 마랑(馬糧) : 백중제(百中祭)는 축산 관장신(畜産管掌神) '정수남이'를 위하는 굿이므로 그 굿을 할 때 들어오는 쌀을 우마(牛馬)가 먹을 쌀이라는 뜻으로 마랑(馬糧)이라 함.



영천목사가 당과 절을 파괴하며 제주 삼문안에 들어왔을 때, 남문 밖의 만년 팽나무 아래 좌정한 옥황상제 막내딸아기가 귀양으로 내려와 일곱자 뭉뺑을 거느리고 송낙을 둘러싸서 인간 자손을 도우며 기르고 있었는데, 영천목사가 마지막으로 이 당을 파괴하려고 동헌 안에서,

“삼문 안에 심방이 있다니 심방을 불러들이라.”

그때에 무근성 고만호 대장이 팔자가 굵어 큰 심방이 되어 다닙니다. 눈을 감으면 저승 일을 알고 눈을 뜨면 이승 일을 알아 상통천문 하달지리 하니, 동헌에서 고씨심방을 대동하여 나오라고 합니다.

고씨심방이 동헌 댕돌 앞에 엎드리니, 영천목사가 말씀하되,

“네가 심방이냐?”

“예.”

“네가 심방이면 당에도 영험이 있느냐?”

“예, 영험이 있습니다.”

“그러거든 아무날 아무시에 당의 영험을 보여라.”

“예, 영험을 보이겠습니다.”

영천목사에게 약속 도장을 찍어두고 집으로 오는데 ‘어떤 명령을 내려 이 몸을 목 베어 죽이려 는고?’ 근심과 수심이 잡니다.

그때, 절당의 스님을 불러놓고 영천목사가,

“너의 절당에 영험이 있느냐?”

절당을 지키는 중도,

“예, 부처님의 영험이 있습니다.”

“아무날 부처님의 영험을 보여라.”

“예.”

아무날 아무시에는 동헌에 부처님을 눕혀놓고 이 부처님이 일어나도록 절을 지키는 중에게 불공을 드리라 하니, 그 부처님을 일러 세우지 못하고 영험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때, 남문 밖 각시당한집에 병마기를 꽃아놓은 것을 보고 영천목사가 명하되,

“저 병마기가 관덕정 동헌까지 걸어오도록 굿을 하라.”

심방은,

“예, 소인도 소원의 말씀을 올리리다.”

“무슨 말이냐?”

“저 혼자 기도를 드릴 수 없으니 칠일 일주일 정성을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어서 그리하자.”

그때에 심방은 집으로 돌아와 당주전에 모든 신원을 올려 두고, 면이면 면공원 면향수를 부르고 도면 도공원 도향수를 불러 칠일 되는 날 동헌 마당에서 무악기를 올려 굿을 합니다. 삼천군 병을 달래고 음복지주잔을 동헌 관덕정 지붕을 넘겨 남문 밖 각시당신의 옥황문과 불도문을 열고, 신당문 본당문을 열어 그 신을 동헌에 청해 들이는 신청괘가 가까웁니다. 심방은 오른쪽 팔에 석자 오치 본향팔찌를 묶어매고 각시당신에게 신청괘를 지낼 때, 삼천병마기가 동헌 마당까지

걸어온 것은 아니지마는 삽시간에 천하가 요동하고, 천만년 팽나무가 홀연광풍을 만난 듯이 나무 이파리 나무가지에서 회오리바람 소리가 지나가더니, 곧게 섰던 삼천병마기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와드드드 떨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천목사가 손뼉을 탁 치면서,

“삼문 밖의 신당들은 나의 손으로 파괴시켜 불질렸지마는 삼문 안의 신당들은 영험이 있구나.”  
영천목사가 삼문 안의 신당은 파괴를 못 시키고 섬을 떠납니다.

그때의 법으로 오늘까지도 삼문안의 각시당 삼문토주관, 광양당 고산태오시오전한집과 서문 밖의 상동날물 가의 정절상군농 내왓당 열두시오전과 상서대왕 상서부인, 삼월 열나흘날 꽃놀이 하던 여래불도 녹디할아버지 녹디 할머니, 바깥으로 나무도마 나무칼에 쇠도마 청도 황도 거느리던 본당한집, 동문 밖의 운주당, 고스락당 용여국대부인, 산지의 용궁 칠머리 세변도원수 해신국은 파괴를 못 시키고 오늘까지 만대유전을 시켜옵니다.

## 2

옛날, 제주 탐라국 한라산에 노루 사슴 멧돼지가 많다 하니, 순흥고를 안포수 삼형제가 제주산으로 사냥하러 입도하여 큰형님은 서문 밖 어도리 어음리로 들어서고, 둘째형님은 납읍리로, 막내는 선흘로 들어서서 사냥을 하여 삽니다. 어도 어음리 큰형님은 사냥이 잘 되어 없는 재산을 일으켜 잘 살고, 납읍리 둘째형님도 수렵업이 잘 되어 잘 살고, 선흘리의 막내는 수렵업도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져서 ‘나하고 같이 온 형제들은 다 잘 살건만 어찌하여 나는 이리 되는가?’

옛날도 갑갑하니 ‘점이나 쳐 보자.’ 하고 신안을 찾아 점을 치니 산신에 기도를 하라 합니다.

“어느 심방이 잘 하는가?”

도성 안 무근성 고씨심방이 유명하다 하므로 선흘리 안씨택의 소무를 거느리고 두이레 열나흘 무악기를 울려, 대통기 소통기를 세우고 안으로 사당클을 메어 원성기도 굿을 합니다.

굿을 끝맺어 소무를 거느리고 상안체를 짊어지고 도성 안에 들어서 베릿내 연무정에 이르니 상안체를 짊 소무가 난데없이 양 어깨가 걸리고 상안체가 무거웁니다. ‘이게 웬 일인가.’ 하여 돌 위에 안체포를 놓고 끌러보니 쇠주머니 안에 작은 뱀이 좌우로 둥그스름하게 서려 누워 있습니다. 고씨심방은,

“나를 찾아온 조상이로구나. 어서 가자.”

안체포를 도로 묶으려고 할 때, 우연히 고씨심방이 고랑창을 보니, 웬 중 하나가 쌀주머니를 짊 채 엎어져 쓰러져 있습니다. 고씨심방은 겁이 나고 ‘이게 웬 일인가.’ 하여 달려들어 중의 머리를 들어 보니 목숨은 살아있으나 사경에 이르러 있으니, 고씨심방이 말을 하되,

“이게 어떤 일이지?”

고개를 숙였던 중이 머리를 들어 말을 하되,

“나는 절당을 지키는 중인데, 노상에서 시장기가 한이 없어 사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 들은 고씨심방은 얼른 안체포를 끌러놓고 말발굽 같은 백시루 백돌래떡을 꺼내어 중 앞에 먹으라고 내 주니, 그 중은 그걸 먹고 산도 넘고 물도 넘을 정도로 힘이 납니다. 없었던 정신이 돌아와 말을 하되,



“심방님아, 무엇으로 이 공을 갚으리까? 심방의 덕으로 이 몸이 살았으니, 제가 힘을 다하여 공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모셔 온 조상을 눈에 뵈 일이나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를 찾아온 조상으로 난데없는 뱀이 쇠주머니 안에 있어 그게 필시 이상한 일로 생각됩니다.”

중이 그 말 끝에,

“심방이 기도를 하러 갔던 집안의 부군칠성이 됩니다. 그 조상이 한이 되고 때가 되어 당신에게 찾아온 조상이니 어서 가십시오.”

중은 뒤를 좇아 와, 고씨심방 사는 나무 돌쩌귀에 거적문이 달린 작은 초막집에서 그날 밤 머물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울타리를 빙빙 돌다가 한낮이 되자 고씨심방을 부르고,

“거적문에 나무돌쩌귀를 한 허름한 초막이라도 이 자리에 천년성주를 지어 살고 있으면 알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중은 그 발로 나와 고씨심방을 데리고 밋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향교를 지나고 사누장터로 들어가 군왕지지의 땅 좌우청룡을 마련하고 우백호를 마련한 후, 나침반을 놓아 정하되,

“이 쇠 아래로 생수가 있을까?”

“예, 유명한 용수라고 하는 생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어서 이 땅에 와 감장하십시오. 그러면 이 앞의 생수가 찾아질 때까지는 도성안을 울리고 말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고씨심방은 아버님을 이묘해다가 나침반 놓았던 곳으로 감장시켰는데, 그 묘의 영기로 고씨심방은 눈을 감아 저승의 일을 알고, 눈을 떠 이승 일을 알고, 상통천문 하달지리하여 하늘일 땅일을 다 알아 당대의 벼슬로 대정현감을 지냈다.

자식이 태어나니, 그 실력이 삼문을 뒤흔들어 첫자식은 주의 판관을 지내고, 둘째 자식은 대정현감을 지내고, 셋째 자식은 정의현감을 지내고, 자손은 명월만호 조방장 향교훈장 유향좌수 별감을 지냈다.

용수의 생수가 변함이 없을 것 같아도 시대와 때에 따라 변하여 용수가 찾아지는 대로 자손들도 사그라져 좋은 재산도 저절로 없어진다.

이 신은 그 옛날 삼문 안을 뒤흔들어 천하거부가 되고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여 자손에 유전하던 조상이다.

### 3

옛날 우리 제주에 칠년한기 구년 흉년이 든 때, 해야 한다는 기우제를 다 지내고 효용이 있다는 축원을 다 드려도 칠년 한기가 들어 백성이 다 죽게 될 때, 고대장이 술집에 앉아 술 먹으면서 혼잣말을 한다는 것이,

“내가 기우제를 지내면 곧 비가 올 것을…….”

하였더니, 이 말이 관원에 들어갔다. 하루는 고대장을 동헌에 불러다가 사포가 하는 말이,

“너는 아무 주막 방안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말을 하였느냐?”

“예,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겠느냐?”

“그거야 알 수가 있으리까마는 기우제를 드려 비가 올 듯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우제를 한번 지내 보거라.”

관원에서 명령을 받고 나온 고대장은 태산 같은 수심과 근심이 한이 없어 이 일을 어찌면 좋을까.

도공원 도향수 면공원 면향수 제비들을 다 불러놓아 칠월 정성과 몸정성을 드려 용소 머리에 있는 당밭에 천막을 쳐 놓고, 안으로 사당클을 매고, 생짚으로 신땃 발 되는 용을 만들어 머리와 몸은 사당클에 추켜 올리고 꼬리는 용소에 담가 천상천하에 노는 신들을 초감제로 다 청합디다. 도공원 도향수 면공원 면향수들이 어느 신에게 신원을 드려도 날은 청청 맑고, 어느날 어느시에 비가 올지 지적할 수 없습디다. 칠월 이레 되는 날은 원성기도 굿을 끝마치게 되어가는데, 심방 고대장은 ‘초감제로 오십시오.’ 하고 청했던 신들을 다 돌아가시라며 굿을 하다가,

“신전은 상을 받아 고이 돌아서는데 이 심방은 오늘 동헌 안에 들어가면 목을 잘려 죽게 됩디다. 명천 같은 하늘님도 이리 무심합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축원의 말씀을 올렸더니, 사라봉 상상봉으로부터 주먹만한 먹장같은 구름이 솟아올라 화창하게 맑던 하늘 위를 뒤덮더니, 굵은 빗방울 가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요동치고 번개를 쳐 가면서 수천리에 큰 비가 내려옵디다. 도공원 도향수 면공원 면향수 제비 할 것 없이 신땃 발 용의 몸뚱아리를 머리에서 꼬리까지 어깨에 둘러매어 무악기를 올리면서 동헌 마당까지 행렬을 하여 들어갑디다. 관원 사또 이방 형방 할 것 없이 삼고을의 사관장들도 다 입참시켜 놓고, 비 오는 동헌 마당을 악기를 치며 드리둥둥 울려 두고 신땃 발 용 몸집에 네 번 절을 합디다. 관아에서는 기동통인 선배후배 마후배 삼만관속 육방하인을 다 나오게 하여 피리단적 옥단적 일관로 일기생 모든 광대 모든 사령들이 다 나와 팔자 굵은 고씨심방을 별연독교 쌍가마에 모셔 삼문안을 집집마다 돌며 소무를 시켜 칠년한기 흥년에라도 눈물에 적신 쌀 한방울씩이라도 시주를 모아 대잔치를 엽디다. 눈물을 거두지 못한 심방들은 기쁨에 넘쳐, 무심하던 하늘님도 전생긔은 심방의 서러움을 알아 비를 내려주시는가 하여, 무심히 들어갈 수 없어 그 비가 끝날 때까지 동헌 마당에서 함께 잔치를 지냅디다.

몇 시간 안 내린 비로 시내가 가득 차고 새파란 바닷가는 새카만 물로 변하여 다음날 아침에는 어느 집을 막론하고 농부들이 소에 쟁기를 짊어지워 밭에 나가니, 씨뿌리는 타령소리가 가득 합디다. 동헌 마당에 관원들도 나아가 기쁜 웃음을 웃고, 그 해부터 칠월 열나흘 백중 때가 되면 팔자 굵은 심방들은 어느 심방집을 막론하고 백중대제일을 지내고 백중마랑으로 곡식을 받아옵디다. 그때의 법으로 칠월 열나흘 백중이 가까워 오면 첫 제일을 마련하는 법이 생겼습디다.